

## 전남

## “장흥서 통합의학 체험하세요”

29일부터 10일간 천관산서 박람회

무료검진·강연·체험 1석3조 효과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 등을 접목시킨 ‘통합의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국내 최초로 장흥에서 연례행사로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흘간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일원 43만㎡에서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전시·강연·체험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통합의학과 관련한 1석3조의 효과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행사의 경우 A전시관에서는 서양의학관, 한의학관, 전통의학관 등을 마련해 각 의학체계별 원리와 기능을 설명하는 한편 통합의학관을 따로 설치해 통합의학의 개념과 역할, 그 필요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들려준다.

강연행사는 한의학, 심신요법, 비만관리, 서양의학, 해외전통의학, 수기요법·요가·마사지, 여성

건강, 생양초 등 분야별 전문가가 초청해 이뤄진다. 도는 특히 치매(박중욱 원장)와 장수(전세일 원장), 유방암(최명숙 원장), 비염·이토피(최종환 원장) 등 매일 분야별 명의로부터 무료 진단 및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행사는 산업관, 천관산 체험존, 감곡단지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산업관에서는 편백나무와 어우러진 자갈길에서 피톤치드와 지압을 체험하고 각종 약초를 우려낸 물로 족욕(足浴)을 할 수 있다.

이어구 전남도 보건환경부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통합의학 박람회인 만큼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무료검진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박람회에 참석하면 강연을 듣고 무료검진도 받으며 천관산 체험까지 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에는 장흥 문화예술

▲통합의학이란=현대 서양의학을 기본으로 한 방요법, 보완요법, 대체요법 가운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선택해 병행·접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학이다.

회관에서 스위스, 일본 통합의학의 과거·현재·미래와 통합의학의 사례, 통합의학의 메카로서의 전남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도 연다.

이어구 전남도 보건환경부장은 “천관산 체험존에서는 약초발제회·음악치료(영월정), 다도·명상 체험, 문학치료(장천재), 기공·요가 체험(체육공원), 느리게 걷기(풍호대) 등이 가능하다. 감기·기침에 좋은 감국(甘菊)을 심어놓은 단지에서는 감국차 시음, 산소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ju.co.kr

## 꼬막·새꼬막, 대량 생산길 열렸다

인공종묘 연구 활발… 꼬막 강진서 분양·새꼬막 득량만에 살포

자연산 종묘로만 생산이 이뤄졌던 꼬막 등 수산자원에 대한 인공종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종묘 수급 불안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꼬막 인공종묘 살포=국립수

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는 민간업체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새꼬막 인공종묘를 생산, 21일 고흥 득량만 등 괴조개 양식장에 중간양성을 거친 인공종묘 200만 마리를 시험 살포한다.

새꼬막은 여자만을 중심으로 득량만과 경남 남해군 강진만 및 사천만 등지에서 연간 2만7000t 정도 생산돼 양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품종으로, 괴조개에 비해 환경저항력이 강해 성장이 빠르고 생존율 또한 높아 괴조개에 대체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집중강우로 새꼬막 주요 청묘 장소인 여자만에 저온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새꼬막 청묘량이 평년보다 10% 정도 부진했으나, 올해는 자연 청묘량이 회복되는

등 해마다 새꼬막 청묘량 기록이 삼한 편이다.

◇꼬막 인공종묘 생산·분양=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전국 최초로 강진만에서 꼬막 인공종묘 5t를 생산,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분양하는 꼬막 인공종묘는 중간육성을 마친 평균

지름이 1.7cm 내외로 kg당 약 1000개 체로 5t 가량이다.

수산기술사업소는 지난해 7월 민간업체인 [㈜유니보스](#)와 꼬막 인공종묘 생산 기술협력(MOU)을 체결한 후

1년여 동안 기술개발을 거쳐 결실을 봤다.

수산기술사업소와 [㈜유니보스](#)는 도내 희망 어업인에게 인공종묘를 우선 보급하고 내년에 보급할 2010년산 꼬막 인공종묘 1억마리도 기록 계획이다.

수산기술사업소는 현재 8mm 내외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어 내년 5월께 1cm 이상의 종묘 100여t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연간 5000여t의 꼬막을 생산해 3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꼬막양식은 자연산 종묘에 의존해 종묘 수급이 불안정했지만 인공종묘 생산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日 이즈미오츠시 경제인 광양 방문

일본 이즈미오츠(泉大津)시 시장과 경제인 58명이 지난 18일 광양시를 방문해 산업시찰과 경제교류 활동을 벌였다.

방문단은 일본 오사카만에 위치한 주요 항만인 사카이센부쿠항(堺泉州北港) 항만진흥회를 비롯해 이즈미오츠 시장, 의장, 기업체 대표 등 항만관련 인사들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광양제철소를 방문한데 이어 항만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카이센부쿠항의 발전 아이템을 광양항에서 찾기 위한 경제교류 활동을 벌였다.

한편 포스코 일본법인인



POSCO-JOPC가 위치한 이즈미오츠시는 모직물 생산 일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내 최대 꽃시장인 오사카 이즈미오츠 풀라워 센터와 GNN 오토옥션(중고자동차 경매센터), 카페리션 터미널 등 다양한 산업시설을 갖춘 도시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순천만 갈대순 활용 전통주 개발

### 시, 정원박람회때 공식주로

순천시가 건강지향형 웨일 전통주를 개발했다. 순천시는 순천대 산학 협력단과 공동으로 최근 전통주 개발을 완료하고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 전통주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와 시음회를 가졌다.

이번 개발된 술은 지역에서 생산된 찹쌀과 우리 밀로 만든 누룩을 주 원료로 한 전통주와 순천만에서 자란 갈대순을 활용한 특산주 등 2종이다.

전통주는 알을 함량 14도로 깊고 부드러운 맛을 가진 마시기에 편하고 숙취가 없는 건강지향형 웨일주이다.

중금속 해독작용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갈대는 특화한 특산주

는 지역민의 정서와 역사, 전통이 녹아있는 종합적 정신문화의 산물로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전통주로 탄생됐다.

시는 앞으로 개발된 전통주에 대한 상표 출원을 추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주류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량생산 체계를 갖춰 대한민국 대표 명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대표 음식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은 생태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2013 순천만 국제 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시 공식주로 활용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꽃매미 방제엔 끈끈이트랩이 ‘최고’

지난 6월 장성 축령산에서 ‘주홍날개꽃매미’(일명 꽃매미)가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방제기술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와 (주)한국유용 곤충연구소는 공동으로 최근 꽃매미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친환경연구소는 “악종(若蟲)기에는 주로 가죽나무에 서식하며 즙을 빨아먹으므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면 꽃매미 유충이 80%까지 방제가 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꽃매미가 발생하는 여러 지역을 선정, 노랑·파랑·갈색 등 3가

지 색깔 끈끈이 트랩을 나무 바로밑·1m·2m 높이에 설치한 결과 1m지점 갈색트랩에 매일 8마리 이상이 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꽃매미 발생지역에 갈색트랩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한편 친환경 수간 주시탁을 선발하는 등 종합적인 꽃매미 방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국내 유입된 꽃매미는 포도나무 등 과수 줄기의 즙액을 빨아먹어 고사(枯死)시켜 수확량을 감소시키거나 분비물 배설로 그물을 유발해 과일품질을 저하시키는 피해를 끼치는 외래 해충이다.

/송기동기자 song@



## 구례 농민회, 공동경작 ‘통일쌀’ 벼베기

구례군 농민회(회장 김봉용)는 19일 용방면 친환경센터 인근 ‘통일쌀’ 공동경작에서 회임자 스님, 광주 기아차 노조, 구례농민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쌀’ 벼베기 행사를 가졌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소나무 숲과 구절초의 어우러짐, 이 가을 최고의 서정

아름드리 소나무숲과 단아한 자태의 구절초가 어우러진 보성 숲에 사진가들이 밟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군 웅천면 용반리 턱립마을

앞 수령 130여 년의 적송 200여 그루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구절초가 어우러져 운치를 더해주

고 있다.

웅천면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올해 희망근로 사업 일환으로 잡풀을 제거하고 구절초 1만5000여 송이를 식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온 사진작가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

이 찾고 있다”며 “다음주께 구절초가 만개될 정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005년 5월 이곳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사진작가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

고 있다.

구절초는 “전국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첫 지역이다.

구절초는 “전국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첫 지역이다.